

서울시 특성화고 절반 이상 정원 미달

서울시내 특성화고의 절반 이상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9학년도 서울시 70개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결과 1만5502명 정원모집에 1만7375명이 지원해 1.12배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70개교 중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미충원 학교는 38개교가 발생했으며, 미충원 인원은 1709명이다. 70개교 중 일부 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정원을 충원하지

70개교 중 38개교 미충원...1709명

대입선호 경향에 일부 학교에 몰려

못한 학교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경쟁률을 발표할 경우 개별 학교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경쟁률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997년 초중등교육법에 특성화고 조항이 신설되며 시작된 특

성화고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성화고 재학생은 현장실습과 체험위주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대입 선호 성향과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특성화

고는 해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미충원 학교 2개교 발생 이후 2016년 10개교, 2017년 16개교, 2018년 44개교 등 해마다 미충원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학과 개편을 지속 추진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특성화고 국제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진로직업교육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사랑을 전해요 서울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지원위원회 회원이 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서 다른 화가정에 전달할 사랑의 선물을 제작하고 있다. 사랑의 선물상자에는 후라이팬, 양말, 라면 등 15종류의 생필품이 담겨 있다.

미친 집값에 밀려 '탈서울' 러쉬

서울거주자, 경기도 아파트 매입 활기...남양주>김포>용인順

올해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경기도 아파트는 모두 5만7951가구로 이중 남양주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 거주자가 구입한 남양주시 아파트는 6211가구로 전체의 10.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김포 10.5%(6110가구), 용인시 10.2%(5926가구), 고양시 9.9%(5539가구), 하남시 6.9%(4002가구) 순이다.

특히 남양주시에 서울 거주자들의 수요가 몰린 것은 올해 서울의

'미친 집값'에 따른 탈서울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집값에 밀려 탈서울을 선택하는 실수요자들의 '집값 피난처'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또 김포 용인 등은 최근에도 지하철 연장,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계획 등 여러 개발 효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달 발표 예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도 경기권 아파트 매입 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 수요가 많이 이전하는 경기도내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과 접한 곳으로 입주불량

많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인접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양시장도 인기다. 남양주에서 지난 9월 분양한 다산해모르는 20.6대 1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뒤 완판에 성공했다. 의정부에서는 11월 탑석센트럴 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41.7대 1을 기록하며 지역 내 역대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용인, 하남 등에서도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1에 달하는 곳이 나왔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자 매입 건수가 많은 경기도 상위 10개 지역에서 12월 10곳에서 732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부동산인포는 이 외에도 고양, 하남, 의정부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일수록 서울 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스



KT 통신구 화재 발생 이틀간 인접

마포·서대문 카드결제 30억 급감

"소상공인 피해 보상해야"

서울 서대문구 KT 이현국사(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이후 이틀간 서대문구와 인접 마포구 내 신용카드 결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제한이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돼 소상공인 보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마포갑)이 BC, KB국민, 신한,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11월 넷째 주 주말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결제액은 약 538억9663만원으로 전주 주말보다 30억582만원(5.3%) 줄었다.

KT 자회사인 BC카드가 13억1385만원(7.3%) 급감했고 KB국민카드도 11억442만원(7.5%)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4억8232만원

(3.6%), 삼성카드는 1억원(0.9%) 줄었다.

지난달 넷째 주 4개 카드사의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결제액이 급감한 것은 작년 같은 기간 결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작년 11월 넷째 주 주말 같은 지역 카드결제액은 전주 주말보다 7.7%(36억1360만원) 증가한 505억1255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주말 마포·서대문구 카드결제가 급감한 데에는 KT 이현국사 통신구 화재 여파로 인근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 위원장은 "KT가 소상공인 등의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도 조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KT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대폭으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2022년까지 관내 100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한다

인천시가 4차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를 위해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관내 기업 가운데 1000개 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서구에 있는 (주)연우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도입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박 시장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시가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자료에 의하면 평균 45% 불량률 감소, 15%원가절감, 10%의 납기단축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성의 경우에는 30%가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고용이 평균 2.2배 증가했다.

한편 스마트공장이란 설비와 물류자동화를 기반으로 공정자동화, 공장자동화, 공장에너지관리, 제품개발, 협업형 정보경영체제인 공급사슬관리(SCM), 기업자원관리(ERP) 등이 ICT를 이용해 구현되어진 미래형 공장을 의미한다.

완도군 e-shop 원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